

世宗 19年 (1437年)製 景福宮 渾象의 復元

羅 逸 星

延世大學校 天文大氣科學科

世宗大王은 그의 在位 19年 (1437年)에 大簡儀臺를 위시하여 20種의 天文儀器를 제작하였는 바, 그 중에는 지름이 10尺8寸6分 (71.6 cm)되는 渾象이 포함되어 있다. 이 渾象은 89年후인 中宗 21年 (1526年)에 修理되어 內觀象監에 설치되었고, 이 때 새로 만든 渾象이 簡儀臺 西쪽에 있는 觀測臺에 설치되었으나, 이 두 渾象은 모두 壬辰倭亂때 타 버렸다. 宣祖 34年 (1601年)에 와서야 李恒福이 주도하여 다시 제작되었으나 이것이 언제 없어졌는지 지금은 그 조각조각 찾아 볼 수 없다. 그때로부터 300여 년간, 한국에는 단 하나의 渾象도 제작된 일이 없었다. 그러나 다행히 1991년에 文化財管理局이 世宗代 渾象 復元の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부터 復元사업을 시작한 바, 본인이 이 일을 위탁받아, 그 중 제1단계인 渾象毯와 地平環 製作을 수행하여 1994년 10월 10일에 完成하였다. 여기에 이 復元작업의 경과와 復元된 渾象을 보고하려고 한다.